



6.3 지방선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노총 지지후보와 함께 교육의 미래를 바꿉시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이용기,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조용식을 적극 지지합니다.

두 후보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참교육을 실천해온 전교조 출신 후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을 역임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조용식 후보 또한 오랜 기간 현장 교사로 활동하며 전교조 운동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수의 땅인 경북과 울산을 바꿉시다. 변화의 시작을 아이들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 없이 배우며,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을 때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교육의 변화는 결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더 평등하고 더 인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 이용기

경북교육감 이용기 (예비)후보는 전교조 경북지부장과 민주노총 경북본부 수석부분부장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과 노동 현장을 함께 고민해온 후보입니다. 또한 기본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AI 시대 미래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등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노옥희 울산교육감 비서실장
(전) 천창수 울산교육감 비서실장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전) 학성여중·고, 무릉고, 천상고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전)
민주노총 경북본부 수석부분부장 (전)
영덕여자 중·고등학교 교사 (전)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 (현)



조용조용 아이편 조용식

울산교육감 조용식 (예비)후보는 2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해온 현장 교사로서 공교육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소 소장과 노옥희, 천창수 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아이 중심 교육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평생을 노동운동을 위해 헌신한 두 동지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힘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과 가족, 친지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해 주십시오. 또한 선거승리를 위한 세액공제 후원과 펀드 조성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한명의 실천과 연대가 지역의 교육을 바꾸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공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이자 전교조 출신 후보인 이용기·조용식 후보와 함께 공교육 강화, 노동존중 학교문화, 아이 중심 교육,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6.3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교육의 미래를 바꾸고 아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26년 경주시부 조합원들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2026년 5월 11일 금속노조 경주시부 운영위원회 일동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지부장 정진홍, 수석부지부장 김재홍, 부지부장 우정식, 부지부장 황준하, 사무국장 이명호, 광명산업지회 지회장 김대진, 광진상공지회 지회장 최진식, 금강지회 지회장 백창익, 다스지회 지회장 임도형, KBI동국실업지회 지회장 김명열, 동진이공지회 지회장 지광환, 디에스지회 지회장 최강민, 리어코리아지회 지회장 전동훈, 명성공업지회 지회장 김광현,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 신시연, 비투지회 지회장 이종혁, 세진지회 지회장 박규환, 아이티더블유지회 지회장 정석원, 아진카인텍지회 지회장 서동찬, 에코플라스틱지회 지회장 김만조, 엠에스지회 지회장 박지웅, 오피모빌리티지회 지회장 양명덕, 우영산업지회 지회장 박진호, 인지컨트롤스지회 지회장 최용복, 일진베어링지회 지회장 황재근, 청우지회 지회장 박희준, 코레스지회 지회장 장진호, 코리아에프티지회 지회장 이상훈, 현담산업지회 지회장 이상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지회장 심상우,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환철,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지회장 임영진, 현대엠시트지회 지회장 고훈봉, 현우지회 지회장 권영모, 화신정공지회 지회장 정기철